

## 미 증시, SVB 사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 강세 뚜렷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SVB 사태 불구하고 대형기술주 강세로 나스닥 상승

•미 증시는 주말 SVB 사태에 대한 해법이 유입되었음에도 중소형 은행들의 급락으로 하락 출발. 그렇지만, 문제되던 은행들이 유동성이 풍부해 SVB와 다르다고 발표하자 반등. 특히 달러 약세 및 금리 급락으로 대형 기술주와 리츠 금융 등이 강세를 보이며 나타난 나스닥의 상승이 특징. 한편,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되는 등 물가 안정이 진행된 가운데 SVB 사태 등의 영향으로 채권시장에 패닉 Buy가 발생해 국채 금리가 급락. 이렇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안정적인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다우 -0.28%, 나스닥 +0.45%, S&P500 -0.15%, 러셀2000 -1.60%)

### 특징 종목: 지역은행주 급락 Vs. 대형 기술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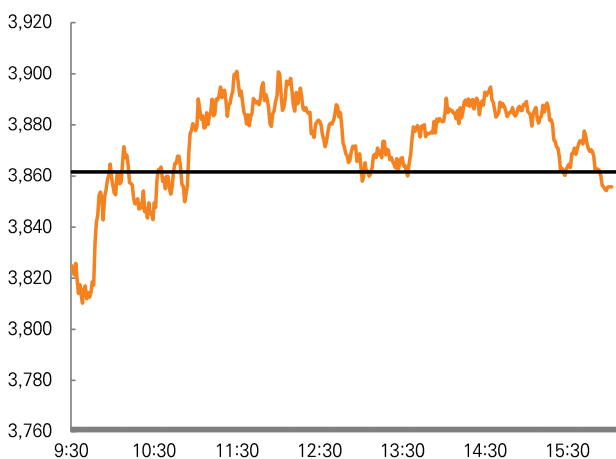
•SVB 파산 및 시그니처 은행 폐쇄로 이스트 웨스트 뱅크(-17.37%)는 장 중 한 때 46% 급락했으나, 자사의 유동성이 강하다고 언급한 이후 낙폭을 축소. 찰스 슈왑(-11.57%)도 한 때 50% 가까이 급락했으나, 유동성이 풍부해 채권 매각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자 낙폭 축소. MS(+2.14%), 애플(+1.33%), 아마존(+1.87%), 알파벳(+0.53%), 메타(+0.77%) 등 대형 기술주는 달러 약세와 함께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제고, 풍부한 유동성 등을 감안 견실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2,400p 내외 등락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16%, MSCI 신흥 지수 ETF는 0.1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4.4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2%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SVB 사태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해법 발표에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채권시장에서 패닉 Buy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불안 요인. 한편,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지수가 1.60% 하락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정부 당국의 SVB 사태 해법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태 완료를 위해선 심리적인 안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전일 상승을 뒤로하고 1% 내외 하락 출발 후 재무제표가 견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재정적으로 불안한 기업들의 매출 출회 가능성은 불가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10.60	+0.67	상해종합	3,268.70	+1.20
KOSDAQ	788.89	+0.04	홍콩항셱	19,695.97	+1.95
DOW	31,819.14	-0.28	베트남	1,052.80	-0.02
NASDAQ	11,188.84	+0.45	유로스톡스 50	4,096.54	-3.14
S&P 500	3,855.76	-0.15	영국	7,548.63	-2.58
캐나다	19,588.90	-0.94	독일	14,959.47	-3.04
일본	27,832.96	-1.11	프랑스	7,011.50	-2.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 SVB와 지역은행 ②기대 인플레이션

SVB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려했던 예금자 보호 방침을 발표하며 일단 안정을 찾음. 다만 1984년 5월 당시 8위 은행이었던 콘티넨탈 일리노이의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 당시 은행이 지급 불능에 빠지자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은행의 모든 부채 즉 예금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문구를 최초로 대중화 시켰던 사례인데, 이후 뱅크런의 조짐은 진정됐지만 멈추지는 않았으며 이를 주도한 이들은 미국과 해외의 금융기관이었음. 즉 실리코밸리 은행에 대한 정부의 예금자 보호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뱅크런 가능성은 여전함을 알 수 있음.

이 영향으로 장 초반 실리코밸리 은행의 파산과 시그니처 은행의 폐쇄 등으로 유동성이 문제될 수 있는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이스트 웨스트 뱅크(-17.37%)는 장 중 한 때 46% 급락하고 찰스 슈왓(-11.57%)도 50% 가까이 급락. 그렇지만, 이스트 웨스트와 찰스 슈왓 등은 유동성이 풍부하기에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채권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발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종목군의 낙폭이 크게 축소. 다만, 과거 콘티넨탈 일리노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을 찾는다고 해도 부실한 은행들의 뱅크런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은 지속. 다만 금융주의 지속되는 부진에도 이스트 웨스트 뱅크 등의 발표를 감안 시스템적인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95%에서 4.23%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71%에서 2.66%로 소폭 둔화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 품목별로 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내에서 기술린, 식품, 대학교육 등의 하락이 뚜렷한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의료부문이 9.7%에서 9.4%로, 임대료도 9.6%에서 9.4%로 둔화. 지난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타난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완화 기대로 이어짐.

더불어 미국 2월 고용동향지수는 118.14에서 118.29로 개선돼. 다만 그동안의 증가세가 멈추고 최근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시장은 견조하지만, 건설과 IT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냉각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발표. 지난 금요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도 온화한 날씨에 따른 외부 활동 관련 품목의 고용이 증가했을 뿐 경제와 관련된 제조업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 고용시장의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결국 SVB 사태와 그에 따른 중소형 은행들의 유동성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지자 달러 약세, 금리 하락이 확대. 특히 2년물 국채 금리는 3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각되며 무려 50bp 넘게 급락하는 등 채권시장의 패닉 Buy 사태가 발생. 그렇지만, SVB 사태가 일부 개별 금융사의 영향일 뿐 시스템적인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 연준은 3월 FOMC에서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



## 대형 기술주 강세 Vs. 중소형 금융주 부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시그니처 은행의 폐쇄 등으로 유동성이 문제될 수 있는 중 소형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이스트 웨스트뱅크(-17.37%)는 장 중 한 때 46% 급락했으나, 자사의 유동성이 강하다고 언급한 이후 낙폭을 축소. 찰스 슈왑(-11.57%)도 한 때 50% 가까이 급락했으나, 유동성이 풍부해 채권 매각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자 낙폭 축소. 이러한 노력으로 트루이스트파이낸셜(-16.99%), US뱅크(-10.04%) 등도 낙폭을 일부 축소. 퍼스트 리퍼블릭뱅크(-61.83%)도 80% 가까이 급락 후 낙폭을 일부 축소하기는 했으나 60% 넘게 급락해 영향은 지속.

테슬라(+0.60%)는 울프 리서치가 거시 경제적인 우려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5%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포드(-0.58%)는 F-150 EV 라이트닝 리콜 발표로 6% 넘게 급락하기도 했으나, 낙폭 축소. 리비안(-3.04%)이 아마존과 전기 트럭 관련 거래에서 독점성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하락한 가운데 그 수혜를 포드나 테슬라 등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영향.

MS(+2.14%), 애플(+1.33%), 아마존(+1.87%), 알파벳(+0.53%), 메타 플랫폼스(+0.77%) 등 대형 기술주는 달러 약세와 함께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제고, 풍부한 유동성 등을 감안 견실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국채 금리 급락으로 리얼티 인컴(+2.30%), 아메리칸 타워(+2.65%), 에퀴닉스(+2.56%) 등 리츠 금융 회사들은 강세를 보임.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05	대형 가치주 ETF (IVE)	-0.74
클린테크 ETF (CTEC)	-0.19	중형 가치주 ETF (IWS)	-1.75
소매업체 ETF (XLY)	+0.21	소형 가치주 ETF (IWN)	-2.27
온라인소매 ETF (EBIZ)	-0.12	대형 성장주 ETF (VUG)	+0.63
미국 인프라 ETF (PAVE)	-1.520	중형 성장주 ETF (IWP)	-0.28
핀테크 ETF (FINX)	-2.28	소형 성장주 ETF (IWO)	-0.9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08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78
클라우드 ETF (CLOU)	+0.73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21
사이버보안 ETF (BUG)	-0.46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13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53	미국 국채 ETF (IEF)	+1.21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45	하이일드 ETF (JNK)	-0.51
바이오섹터 ETF (IBB)	+2.79	신흥국 채권 ETF (EMBD)	-0.53
로봇&AI ETF (BOTZ)	+0.09	물가연동채 ETF (TIP)	+0.76
반도체 ETF (SMH)	-0.0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8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부동산	229.83	+1.61	-5.13	-9.65
유틸리티	330.22	+1.54	-1.80	-4.49
헬스케어	1,457.14	+0.92	-3.01	-6.36
IT	2,380.00	+0.55	-3.05	-4.47
필수소비재	744.68	+0.47	-1.78	-3.49
커뮤니케이션	171.13	+0.24	-4.30	-5.89
경기소비재	1,074.90	+0.23	-4.66	-7.92
산업재	830.38	-0.61	-4.86	-4.75
소재	485.89	-1.09	-7.12	-6.48
에너지	616.47	-1.96	-7.29	-10.39
금융	525.25	-3.85	-12.07	-14.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매물 소화 속 2,400p 내외 등락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16%, MSCI 신흥 지수 ETF는 0.1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94.4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2%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SVB 사태에 대한 해법이 주말동안 발표되자 혼조세로 출발했으나, 여전히 불안 심리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중국 증시가 양회 폐막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로 상승한 가운데, 장 중 유입된 3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각되자 반등에 성공. 특히 달러/원 환율이 22.4원이나 급락하는 등 원화 강세가 뚜렷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이에 힘입어 KOSPI는 0.67%, KOSDAQ은 0.04%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SVB 사태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해법 발표에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채권시장에서 패닉 Buy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불안 요인. 여타 중소형 은행들이 유동성이 풍부하다며 미 실현 손실 채권의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는 등 SVB와 다른 점을 강조하며 장중 낙폭을 크게 축소하는 등 안정을 찾은 점은 긍정적.

한편,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지수가 1.60% 하락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파산 이후 예금 보장에 불구하고 뱅크런이 지속됐던 지난 1984년 5월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 당국의 SVB 사태 해법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태 완료를 위해선 심리적인 안정이 수반돼야 함. 때문에 한국 증시는 전일 상승을 뒤로하고 1% 내외 하락 출발 후 재무제표가 견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재정적으로 불안한 기업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은 불가피 할 듯.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큰 폭으로 둔화

미국 2월 고용동향지수는 118.14에서 118.29로 개선. 다만, 그동안의 증가세가 멈추고 최근 지속적으로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건조하지만, 건설과 IT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냉각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발표.

뉴욕 연은행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0%에서 4.2%로 크게 둔화. 가계 소득 증가는 3.3%에서 3.2%로 가계 지출 증가도 5.7%에서 5.6%로 둔화.



## 국채 금리, 기대 인플레이 둔화 및 SVB 사태로 급락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특히 SVB 사태의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어 향후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다만, 중국의 양회가 끝나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져 낙폭이 제한된 점도 특징. 미국 천연가스는 LNG 수출 증가 소식과 수요 증가 등으로 급등. 반면, 유럽 천연가스는 북유럽 전역이 예상보다 온화한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풍력 발전 전망이 확대되자 급락.

달러화는 연준의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각되었으며, 연말까지 경기 침체에 따른 75bp 금리인하 확률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물론, SVB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시장은 이보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 유로화는 25bp 미만의 인상 확률이 60%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위원들이 50bp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브라질 헤알 등은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 양상.

국채금리는 뉴욕 연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95%에서 4.23%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SVB 사태로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급락. 특히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75bp 금리인하 가능성이 유입되자 2년물 국채 금리가 50bp 넘게 급락하는 등 채권시장 패닉 Buy가 발생.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및 달러 약세에 힘입어 급등.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곡물은 옥수수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를 통해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 더불어 브라질 옥수수 생산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하락 요인. 대두는 원유시장 하락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으로 하락. 밀은 하락 출발 후 달러 약세에 기대 반등에 성공.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4%, 철근은 0.78%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4.80	-2.75	-7.32	Dollar Index	103.629	-0.91	-0.69
브렌트유	80.77	-2.72	-6.56	EUR/USD	1.0732	+0.84	+0.48
천연가스	2.61	+8.02	+2.06	USD/JPY	133.25	-1.32	-1.97
금	1,916.50	+2.70	+3.40	GBP/USD	1.2181	+1.26	+1.30
은	21.92	+6.65	+3.48	USD/CHF	0.9121	-0.93	-2.00
알루미늄	2,333.50	+0.89	-2.04	AUD/USD	0.6666	+1.31	-0.95
전기동	8,931.00	+0.72	+0.12	USD/CAD	1.3729	-0.74	+0.85
아연	2,946.50	+0.32	-2.84	USD/RUB	75.4187	-0.93	-0.15
옥수수	613.50	-0.65	-3.73	USD/BRL	5.2522	+0.72	+1.81
밀	684.50	+0.66	-1.65	USD/CNH	6.8554	-1.22	-1.36
대두	1,491.25	-1.03	-2.45	USD/KRW	1,301.80	-1.69	+0.38
커피	179.20	+0.79	-0.61	USD/KRW NDF1M	1,294.40	-1.88	-0.2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541	-15.76	-41.66	스페인	3.367	-17.70	-33.00
한국	3.425	-15.70	-29.00	포르투갈	3.199	-18.50	-40.80
일본	0.348	-6.30	-15.80	그리스	4.303	-3.10	-19.60
독일	2.259	-24.90	-49.00	이탈리아	4.183	-13.60	-39.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